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고산구곡가 (이이): 63P
- (2) 기음노래 (작자 미상): 141P
- (3) 영산가 (작자 미상): 176P
- (4) 벼슬을 저마다 하면~ (김창업): 176P
- (5) 용술 먹고 빛둑 뷔척~ (작자 미상): 176P
- (6) 전원사시가 (신계영): 203P
- (7) 반조화전가 (안동 권씨): 220P
- (8) 정석가 (작자 미상): 247P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 북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미고 관암에 히 비춘다
 평무(平蕪)에 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미고 화암(花巖)의 춘만(春晚)커다
 벽파(碧波)의 쫓출 띄워 야외로 보니로라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기 혼들 엇더흐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미고 취병(翠屏)에 님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반송(盤松)이 바람을 바드니 너름 경(景)이 업세라
 <제4수>

사곡(四曲)은 어디미고 송애(松崖) 히 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갓 비치 좀겨세라
 임천(林泉)이 김도록 도흐니 흥을 계워 흐노라
 <제5수>

오곡(五曲)은 어디미고 은병(隱屏)이 보기 조히
 수변 정사(水邊精舍)는 소쇄홈*도 가이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흐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디미고 조협(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황혼의 낙터를 메고 대월귀(帶月歸) 흐노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디미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 죠타
 청상(淸霜)이 얹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한암(寒巖)의 혼즈 안즈서 집을 닛고 잇노라
 <제8수>

팔곡(八曲)은 어디미고 금탄(琴灘)에 들이 붉다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고조(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즈 즐겨 흐노라
 <제9수>

구곡(九曲)은 어디미고 문산(文山)의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의 못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제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주모 북거: 살 만한 터를 가려 정하고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살아감.
 * 하상기음: 새가 오르내리며 우는 것.
 * 소쇄홈: 기운이 맑고 깨끗함.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유와 계장님네 이 기음 매자꾸나
 기음노래 내 부르리
 천지 삼기실 제 사람이 같이 나니
 너르나 너른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거니 귀천이 같을손가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행실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오
 만들기는 장인이오 바꾸기는 장사로다
 치치한* 우리들은 할 일이 무어신고
 속미*와 포루*는 고금의 한 법이니
 복전 역색이 이 아니 근본인가
 종년 작고 수곤 줄도 알건마는
 양사부육*이 이 아니면 어이하리
 창경이 처음 울고 땡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습습하고 세우는 몽몽한데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 때 잃을세라
 송아지 먹거나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네 거름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소
 앞집 보습 뒷집 쟁기 선후를 다틀손가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일군 후에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빈 데 있을세라
 이삭이 비록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랴
 엇그제 갓 맨 기음 어느 사이 벌써 기네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 수고 꺼릴손가
 꿩는 흙 찌는 풀속 상하로 오락가락
 호미쇠도 녹으려든 혈육이 견딜소냐
 오뉴월 삼복 더위 땀으로 낮을 씻고
 현 샷갓 쇠코중의 열양을 막을소냐
 보리술 건 듯 깨니 콧노래도 경이 없네
 붉은 다락 푸른 난간 높은 베개 둥근 부채
 누으락 앉으락 가색간난 그 뉘 알리
 비오면 장마질까 별 나면 가물세라
 독한 안개 모진 바람 시름도 하도 할사

- 작자 미상, 「기음노래」 -

* 치치한: 하찮은.

* 속미: 좁쌀.

* 포루: 배와 실.

* 양사부육: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핌.

* 세벌: 세 번에 걸쳐 김을 매는 것.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풍이 건 듯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네덕으로 한 빛이라
 온 여름 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부르네
 이른 논의 참새 무리 늦은 논의 기러기 때
 남의 속 모르기는 알미울손 짐승이라
 내일은 들 거두세 새벽밥 일찍 하소
 낮 갈아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베거니 묶거니 이거니 지거니
 젊으신네 도리깨질 늙으신네 그네질
 섬 우기네 새끼 꼬네 어지러이 구는지고
 자네 밭에 몇 묶음인가 내 논 소출 이뿐일세
 공사채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종년토록 수고타가 하루 겨를 못 얻을까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술을 빚소
 울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 떨어지네
 게 찌니 닭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룡복기 봉탕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김풍헌 이약정을 좌상으로 모신 후에
 현 패랭이 베 무지렁이 차례로 앉은 후에
 질동이 내어놓고 쪽박 잔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조금 피리 곡조도 좋을시고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이 절로 난다
 어디에서 면주인*은 불속객*이 오단 말고
 잔기침 굶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어서 나소 자주 나소 반객인들 내물손가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 구실 말라 할까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알리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 하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족 무리 더욱 설워
 저 너머 십여 호가 어젯밤에 닷단 말가
 뉘라셔 우리 정상* 그려다가 구중궁궐의 님 계신 데 드리리
 - 작자 미상, 「기음노래」 -

- * 위상하니: 서리가 내리니.
- * 면주인: 주나 부·군·현과 면 사이를 오가며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 * 불속객: 오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 * 환자: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
- * 정상: 딱하고 가엾은 형편.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피꼬리 닳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피꼬리
 황금 갑옷 떨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화류 장대(章臺)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끄적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
 사구평대(沙丘坪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青塚) 속절
 없다*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死後留名) 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끄적 죽어지면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방상 뗏돌 위에
 두렷이 매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굶은비는 세우 섞어 함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두견새로 벼를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광광 이것이 낙이로다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 하리
 노류장화(路柳墻花)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 보세
 - 작자 미상, 「영산가」 -

* 비류직하삼천척 / 의시은하낙구천: 삼천 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
 지는 듯하네.

* 타기황앵: 나무를 쳐서 피꼬리를 날아가게 함.

* 사구평대~속절없다: '사구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으로 인생무상을 의미함.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벼슬을 저마다 흐면 농부(農夫)흐 리 뒤 이시며
의원(醫員)이 병(病) 고치면 북망산(北邙山)이 저러흐라
아히야 잔(盞) 그릇 부어라 내 뜻대로 흐리라

- 김창업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술 먹고 빗뚝 뷔척 뷔거러 가며 먹지 마자 크게 맹서 |
흐엿더니

춘하추동(春夏秋冬) 호시절(好時節)의 남린(南隣) 북촌(北
村) 다 청(請)흐여 회호동락(熙皞同樂) 흐올 머데 어허 맹
서(盟誓) | 가소(笑) | 로다

인생(人生)이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니 먹고 놀여 흐노라

- 작자 미상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날이 접쳐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매화(梅花)는 벌써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아히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햏야라

<제1수>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저 잇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햏야라

<제2수>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낫둑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롬 씨오자

<제3수>

원림(園林) 적막훈디 북창을 빗겨시니
거문고 노라랄 낫즘을 씨와괴야

<제4수>

흰 이슬 서리 되니 ㄱ을히 느저 잇다
긴 들 황운(黃雲)이 햏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햏노라

<제5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예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햏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酒) 장만 햏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헤 눈이 던다
모침(茅簷) 춘 빗치 석양이 거예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햏로라

<제7수>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덤거니
긴 즈 계우 씨니 아적 날이 눙파 잇다
아히야 서리 녹앗느냐 닐고자도 햏노라

<제8수>

이바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햏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이바 아히들아 날 신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자고 새니 세월이 몇춗 가리
백 년(百年)이 하 초초(草草)햏니 나는 굿버 햏노라*

<제10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 -

* 자채: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 자해: 게.

* 굿버 햏노라: 서운해하노라.

[7-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남즈들아 너즈를 괴롱마오
 남즈 일 가쇠로다 우리 보매 우습스의
 몇 들을 경영하며 허송광음 스이 업니
 적으나 쾌남즈면 괴 아니 쉬울손가
 헛모음 다달히며 일변 용의 못 하여서
 부너 일힘의 암암히 불워하니
 잔폐코 췌산키야 이 밧괴 또 이시라
 모다 안자 디저괴며 두문불출 하였고야
 즈가너 못흔 일을 용심 내여 무엇허리
 퍽사를 동가디라 과공은 무스 일고
 출하리 겁히 드러 농업의나 힘빨디니
 님당흔 선비들이 글 덧느라 운동내고
 문취 초칙 썰쳐 내여 흥흥이며 그덕이니
 상하춘 일이가의 괴 몇치 모혔는디
 곳고랑의 심줄과 곤젓 곳흔 부귀들에
 무단흔 열병 토설 이 아니 구경인가
 열흘의 훈마디도 성편 못하고서
 종일토록 하는 말이 광언 패설뿐이로다
 그려도 무슴 경의 밋친 모음 내닷관디
 시시로 두로 모혀 곤당을 타둔하니
 욱죽다 부모유체 저 무슴 일어런고
 내암 나는 좀 글지는 삼년의셔 더물엇너
 문장이 녹속하니 건도성너 하였던가
 아와 애들을샤 너즈 되미 애들을샤
 우리 일신 남즈런들 이 아니 쾌홀넌가
 느즌 봄 곤흔 날의 빈 독을 글디 말고
 춘당디 알성시에 일필명작 하여 내여
 계화 청삼 빗난 등의 열친광너 하였만은
 하늘히 무디하여 너신으로 마련하니
 아모리 애들은들 곳쳐 다시 되일손가

- 안동 권씨, 「반조화전가」 -

[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규*에 드러안자 옥매로 벗을 삼아
 여행을 맑게 닳고 방적을 힘쓰더니
 동군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모라오니
 원근 벼랑에는 홍금당을 둘러 잇고
 촌변의 도리화는 가지마다 색을 띠어
 사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돋우는데
 도로혀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여자의 달라짐도 예부터 이심으로
 한 걸음 돌려서 완풍경 하려 하고
 지심하는* 우생들과 일언의 구일하니
 맛바위 사미당에 대회를 여러 내어
 금차 옥잠은 용모의 광채 되고
 녹의홍상은 도로의 문명하다
 춘풍이 다시 부러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 여인 열좌하네
 규리 한담으로 차차로 수작하고
 청유 분 모아 내어 소담히 장만하여
 옥녀 선동들을 먼저 엮어 내어노코
 조용히 모여 안자 정결히 요기한 후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하니
 동풍 어제 비에 봄경이 새로왔네
 대상의 벽도화는 날 위하여 웃어 잇고
 강두의 양류지는 의연한 춤이로다
 오색운 깊은 골의 척축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전계에 맑은 징담* 한가도 한가할샤
 청승별계를 다시 보와 무엇하리
 귀가의 도흔 소리 조수 호음 아닐손가
 노선생 사시음에 무권춘산 금수명이
 형용도 도홀시고 진실로 이경이라
 정전의 푸른 풀은 한 가지로 띄어 있다
 주렴계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형형색색을 조화옹이 비저 내니
 모으면 하나 되고 흠으면 만 개로다
 도라안자 바라보니 성인의 술 아닌가
 노래하며 취하여 주야를 모르거니
 아는가 모르는가 이 보소 남자들아
 춘시 호광음의 여자 조롱뿐이로다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 수치 또 있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위인도 경계술이 다 주어 버렸거늘
 보고 읽고 못 행하니 단청 구경 아닐소냐
 인근에 너른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산경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산금 야수가 벗하려 하는고야
 영대에 거친 띠를 뉘 능히 베어 내리
 그래도 명리상에 헛욕심 자아내야
 단양 화월리에 저 소리 흠염하니

저러한 남자들은 불취반치 되는구나
 우뚝한 대장부는 더욱 아니 본받으랴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 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 안동 권씨, 「반조화전가」 -

- * 심규: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집이나 방.
- * 지심하는: 김매는.
- * 징담: 연못.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디(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제1연>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물 여히으와지이다

<제2연>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두(接柱) 흐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휘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물 여히으와지이다

<제3연>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물 여히으와지이다

<제4연>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물 여히으와지이다

<제5연>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츠리잇가
 즘든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든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